

##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소설의 중국문화 형상 연구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간도」를 중심으로

南春爰\*

### 1. 들어가는 글

유이민<sup>1</sup>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경과하면서 학자들은 수많은 연구 업적을 쌓아 올렸다. 그 중 작가 안수길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강경애, 최서해와 더불어 유이민 문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기존의 유이민소설 연구는 크게 유이민 이민사, 수난사, 투쟁사(독립운동) 등에 대한 것으로 그 연구가 주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근년에 이르러 유이민 소설에 담긴 중국형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연구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필자가 안수길의 『북간도』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것도 이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북간도』가 유이민 삶을 반영한 대표적 작품이라는 것, 안수길에 의해 그려진 중국형상은 간도를 제 2의 고향으로 받아들인 작가적 안목이 주목되는 점이라는 데서이기도 하다.

안수길의 『북간도』에 비친 중국형상에 대한 연구는 유이민으로 살았던 그 시대 조선인의 형상을 오늘에 와서 확인해 보는데 일조하며 민족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읽는 거울로도 그 가치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논문에서 연구되는 중국문화형상을 빌어 그 시기 유이민들의 삶의 분위기를 읽어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요해에 의하면 유이민소설 연구 중 중국형상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한국 현대문학 중의 중국형상 연구」<sup>2</sup>,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sup>3</sup>,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sup>4</sup> 등이 있고 지속적 연구로는 유인순<sup>5</sup>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

南春爰\* 문학박사. 대원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sup>1</sup> ‘유이민’이란 용어의 계보를 간단히 정리한다. 학술연구에서 ‘유이민’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87년 현규환의 저서 『한국유이민사』의 제호에 쓰인 것이 최초의 용례이다. 현규환은 ‘유민’과 ‘이민’의 개념상 차이를 제시해 보이면서 이들 두 용어의 통합개념으로 ‘유이민’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왔다. 그 후 ‘유이민’이란 말은 관련 학술분야의 상용어가 되었다. 필자 주.

<sup>2</sup> 최 일, 「한국 현대문학중의 중국형상연구」, 연대대학 박사논문, 2002 6

<sup>3</sup> 박일우,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09

<sup>4</sup> 김성욱,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9

<sup>5</sup> 유인순은 유이민 소설의 중국 형상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 논문들로는 「근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한중 인문학 연구』, 2002), 「현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한중 인문학 연구』, 2004), 「한국 장편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한중 인문학 연구』, 2004), 「한국소설 속의 서울 그리고 중국, 중국인」, 『한중 인문학 연구』,

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 당시 중국의 원주민 형상, 사회제도와 정치형상, 평범한 생활형상, 유이민 삶의 배경이 되었던 문화형상 등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그 역사가 짧은 데다가 얼마간 낮은 영역이라 적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기존 연구에서 줄곧 부수적 연구로 되고 있는 문화적 형상에 역점을 두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간도」에 투영된 중국문화형상을 놀이문화와 전족문화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학의 문화적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문학적 연구의 독립성을 훨씬 벗어나 문화적인 공간에 문학 작품을 새롭게 부각해 내는 작업의 일환이다.

모든 나라 사이의 교류는 문화의 교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은 문화가 일체를 주도하는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문학작품에 체현된 중국문화형상을 살펴 보는 일은 그 현실적 의의가 있다.

## 11. 「북간도」에 투영된 중국문화형상

모든 문학연구는 문학에 접근하는 사람의 관심과 태도에 따라 문학 연구의 형식과 내용들이 달라진다. 것처럼 문학작품은 그것들을 읽는 사회나 학자에 의해서 다시 찍어지는 것이다.<sup>6</sup>

한-중-일 세 나라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문화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는 누구의 것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운 문화 현상들을 보게 된다. 그만큼 문화의 속성은 공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개성적인 문화형상이라고 해도 근거를 밝혀보면 내용은 어쨌든 형식적인 것에서 그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본논문에서 논의할 놀이문화 부분에서 중국의 양거리놀이와 현재 한국에서 전해지는 전통적인 놀이인 농악무놀이가 바로 그러하다.

안수길은 자기의 작품 「북간도」에 중국의 많은 문화현상을 투영시켰다. 그는 그 시대에 중국으로 이주한 문화대오<sup>7</sup>의 문화인들과는 달리 간도는 낯설고 새롭거나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평범한 생활인으로 안온한 생을 영위한 공간<sup>8</sup>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간도를 보는 눈길과 느끼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그가 중국의 문화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자기의 작품 속에 용해시킨 데서도 잘 나타난다.

2009)등이 있다. 필자 주.

<sup>6</sup>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Blackwell publisher Limited. 1983, pp.1-16.

<sup>7</sup> 1940년까지 중국에 이주한 한인 작가는 무려 서른명이 넘는다고 한다.

안수길, 「간도중심의 조선문학 발전과정과 현단계」, 『만선일보』, 1940. 2. 2.

<sup>8</sup> 안수길의 조부는 북간도와 아라사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상을 했다. 그의 부친은 용정의 한인학교인 광명여자국민고교의 교감 동아일보 용정지국장을 지낸바 있다. 그가 4학년을 고향에서 졸업하고 할머니 최씨와 함께 1924년에 최씨와 함께 용정으로 이사왔을 때는 이미 가족이 정착하고 있는 곳이었다.

## 2.1. 놀이문화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는 ‘농새르 양이하는 노무 새끼는 소용이 없다’, ‘이놈우 새끼 농사르 짓젠쿠서리 빨리 돼져라’<sup>9</sup>같은 말이 한복의 증조부의 입에서 여러번 중복된다. 그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한복의 조부에게 내려진 가족의 최고이자 최저에 가까운 인간의 기본을 지키라는 지시같은 것이었다. 그만큼 그 시대 어른에게 있어 농사나 일은 오늘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반면에 놀이는 당장에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여가 활동이니 이국에 발 붙이고 사는 유이민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거의 금물(어린이 제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사만 짓고 살 수 없다고 도시를 지향하여 터전을 비우는 일, 일만 하고 살면 인생이 팍팍하다고 여기는 시대, 여가생활이 직업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의 안목으로 「북간도」에 그려진 그 시대 유이민들의 눈에 비친 중국의 놀이문화를 나름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

### 2.1.1 제기차기놀이

제기차기 놀이는 민속놀이의 일 종류이다. 제기차기의 족보를 캐보면 아래와 같다.

역사문헌 《고승전高僧传》二集卷十九《佛陀禅师传》10에 의하면 제기차기 놀이는 중국 한조때에 기원하여 육조, 수, 당조 때에 와서는 성행했다고 한다. 당조《고승전 高僧传》2집 19권《불타선사전佛陀禅师传》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타라는 사람이 낙양을 가다가 길에서 12살에 나는 혜광(惠光) 소년을 만나게 된다. 그 소년은 거리의 놀이터에서 제기차기를 연속 500개 이어 하는데 구경꾼들은 이에 탄복을 금치 못한다’ 이 문헌 기재에 있는 발타跋陀라는 사람은 남북조 북위조(기원 467-499년)의 사람으로 하남 호산소림사의 주지스님이었다, 그는 혜광이 마음에 들어 제자로 삼았고 혜광은 소림사의 중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도 『삼국사기 신라본기』11에 제기차기

<sup>9</sup> 안수길 「북간도」, 미래의 창, 2004 pp.43-44.

<sup>10</sup> 刘飏, 「『高僧传』研究回顾与发展」, 湖北黄冈职业技术学院学报, 2009, 6, 11期. 그의 논문에 의하면 남북조시기 사서史书는 승려들의 전기로 가장 발달했다. 《고승전 高僧传》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서 중에서 승려들의 이모저모를 가장 전면적으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이다.

<http://www.thjy.edu.cn/user1/337/archives/2006/29089.html>

<sup>11</sup> 羅純成, 『한국체육사』, 서울, 文泉社. 1969, p40, 재인용.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편(서기 670년)에 역시 제기차기 놀이에 대한 서술이 있다. ‘庾信이 춘추공(태종)과蹴鞠을 하다가 춘추의 옷끈을 밟아 떨어뜨렸다’는 기록이 있고, 東國歲時記 십이월내축국조(서기 1849)에 의하면 ‘연소한 장성이 축국으로서 놀이를 한다. 그 축국은 큰 彈丸같은데 위에는 평의 깃을 꽂았다. 두 사람이 서로 서서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連해 차서 떨어지지 아니함을 美技로 한다. 겨울에서 시작되어 정월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행된다’라는 기록이 있다.

유래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다. 그 기재에는 고대 황실의 황제의 놀이였고 궁녀들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놀이였고, 송대에는 제기 파는 가게가 있고 명, 청때는 제기 운동회까지 있었을 만큼 옛날에는 제기차기 놀이가 성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에는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민간에 전해졌다고 한다. 이제 와서 이 놀이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했냐 어느 나라에서 수용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백성들이 예로부터 다 이 놀이를 즐겨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삶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든 바로 이런 놀이와 갈라 놓을 수 없다. 배를 불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최상이었던 그 시대였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더없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먹을 것두 없느기 제기를 사겠다느라, 어떤 아아는 웃브더라”  
삼봉이는 부아를 뜯구어 주듯이 장손이 탐내는 제기를 꺼내 찀다. 흰 새깃이 달린 제기였다. 삼봉이 형이 동생에게 만들어 준 것이었다. 제기는 깃을 흔들면서 올라갔다가는 착착 밭에 와 잘 붙었다<sup>12</sup>...

위의 인용문에서 어린 장손은 끝내 갖고 싶은 심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이 한복이가 목숨을 걸고 사잇섬 13에 가 농사 지어온 ‘감쥐 세 개로 최삼봉의 제기를 바꾼다. 작품에는 제기놀이하는 장면이 네 번이나 반복 출현한다.

이렇게 작품에서는 여러 곳에서 제기차기가 묘사되고 있고, 이 제기차기로 하여 ‘세구世仇의 사이’였던 이 한복과 최 칠성의 사이가 더 심각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북간도』에서 제기차기 놀이는 단순한 놀이이기 전에 작품의 긴장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인물형성의 기반을 깔아 주는데 역할한다.

제기차기 놀이에는 자체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 잠시 살펴보면 제기차기는 많은 사람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시대에 필요한 협력 정신의 발휘와 질서 유지의 규율 등이 확립되고, 또한 집단 활동의 쾌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시대 변천과 스포츠문화생활의 영향으로 하여 지금은 쇠퇴 일로에 있다. 『북간도』에 체현된 제기차기는 유이민 아이들의 놀이 문화로 부각되고 있지만, 제기차기 놀이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입지에서 중국문화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제기차기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나가 되어야 독립할 수 있었던 안수길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의 광복의 염원을 이 놀이의 저층에 깔려있는 듯하다. 그리고 오늘날 제기차기놀이는 중국이나 조선에서 민속놀이의 하나가 되어 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고 중, 한 문화의 인연을 연구하는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sup>12</sup> 안수길 「북간도」, 미래의 창, 2004 pp.21-31.

<sup>13</sup> 청국과 조선 두나라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뜻. 일명 ‘간도’라고도 함. 작가 주.

## 2.1.2 술놀이

『북간도』에서 집단문화를 보여주는 놀이는 이 외에도 들놀이의 중심이 되고있는 술 14 놀이에서도 잘 보여진다. 작품에서의 대표적인 술놀이 장면은 청국인 토호 동복산에게 송덕비를 세워 준 조선사람에게 베푸는 중국 사람의 잔치로 묘사되었다.

동복산이는 호뜻한 마음으로 동네에서 유력한 조선사람들을 잔치에 청했다. 비각을 세운데가 마침 들놀이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신록이 한창 무르녹은 나뭇 사이에 자리를 차려 놓고 한 편에서 숨씨 있는 요리사가 저희(중국) 요리를 연방 만들에 대게 하면서...향긋하고 독한 고량주와 맛있고 풍성한 요리를 양껏 먹고 있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사람, 갓이 빼뜰어 질사해 가지고 쓸데없이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 먼저 왔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러가고, 후에 온 사람은 새 자리를 차리고,... 잔치는 근래에 없이 호화롭고 흥그러운 가운데 끝장을 향하여 벌어지고 있었다. 청한 사람 중에서 오리라 생각했던 몇 사람은 끝날 때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 중에 이 장손이도 끼었다.<sup>14</sup>

위에서 인용한 글귀의 마지막에 이 장손이 나타나지 않은 진정한 이유가 함축되었다. 그것은 청국인 토호 동복산이 조선사람에게 베푸는혜라기보다 훗주인 최 삼봉이와 노 덕삼이 권세에 아첨하기 위해 조선사람의 이름을 팔고, 가난한 동포의 주머니를 텅 것이라는 장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작품에 설계된 인물 갈등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전에 그 시대에 그렇게 강조되었던 노동이라는 현장을 벗어난 여가생활로서의 술놀이가 중국인의 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이 술놀이에는 원주민 동복산이 조선인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술놀이 차원이라 하겠다. 작품에는 이 술놀이를 배경으로 조선인이 술이라면 임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애주가형상도 비쳐져 있는데, 작품의 맥을 짚어볼 때 수선 애주가로서의 조선인의 모습은 동복산이 만든 조선인 집단이라는 데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한 자리에 모인 조선인도 있음을 작품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낯색을 살펴 의도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유이민 삶의 괴로움도 이 단락에서 잘 표현되었다. 위의 인용문 중에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사람’, ‘갓이 빼뜰어 질사해 가지고 쓸데없이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러가고’란 등 글귀에서 잘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글귀 속에는 내일이야 어떻게 되었든 ‘한번 마시면

<sup>14</sup>. 중국에서의 술은 ‘두강(杜康)주’를 그 시조로 하고 있다. 동한东汉의 불경학자이고 문학가인 허신许慎의 저서 『说文解字』에서 중국술의 기원설을 ‘두강주’로 밝히고 있다. 『说文解字』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사전이다. (『说文解字』현대버전, 『中华书局』, 2004, 2.)

<sup>15</sup> 안수길, 『북간도』, 제 1 부, pp107~108.

뿌리를 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조선인의 폭주 문화, 상대방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셔야만 예의로 인정되는 대작 문화<sup>16</sup>등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는 이러한 술놀이 문화를 망국의 숙명을 떠이고 사는 유이민들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해독제로 장치되어 있는데, 이는 술을 매개물로 모임의 장을 즐기기 좋아하는 중국의 술놀이 문화의 힘을 빌었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라고 본다. 다만 필자가 유감으로 생각되는 건 안수길의 필하에서 그려진 「북간도」의 술놀이 부분에서 술이 한 순배 들어가면 취중진담식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인간의 진심된 마음을 엄폐시키거나 피해 갔다는 점이다. 이 장면을 빌어 유이민들이 동북산이에 대한 불만이나 동북산을 대항하고 있는 핫주인 최 삼봉이나 노 덕삼의 비리에 대해 얼마간 밝혀내는 언사를 조금도 비쳐내지 않게 했다는 점, 다만 ‘혀꼬부라진 소리나, 쓸데없는 큰소리나, 비틀거리는 걸음’은 너무도 약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이 장손의 갖고 있는 생각이 정당한 것임을 받침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작가로서의 기량과 시대 삶의 지혜로 짚고 넘어가겠다.

다음 이 술놀이에서 중국 특유의 사례 문화의 한 단면도 엿볼 수 있다.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의 북방 사람들은 고마움에 사례할 때 많이, 크게 하는 풍속이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문화의 폐단을 막기 위해 예경의중(禮輕意重)이란 말이 성행하지만 실생활에서 면목 세우기에 면면하다보니 이 말은 빛을 잃고 말았다. 오늘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중국인의 ‘폼잡기 문화’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음도 설명해준다. 이른바 선물을 할 때는 반드시 쌍으로 해야 하는 것도 이에 속하고 결혼할 때 명품차를 줄 세워 신부를 모시는 것도 이에 속하며, 생활 여건에 비해 축의금을 엄청 크게 하는 것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인의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울려서 상대방에 대한 요해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의 생존의 길을 찾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화의 한 단면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 넘치게 하는데만 치중하고 낭비나 상황 파악을 뒤전으로 미루는 중국문화의 단면이자 특징이다. 술놀이로서의 다음 한 단락을 더 보자.

...방안에는 차려 놓은 음식상에 둘러앉아 <가위 바위 보>로 술 먹기 내기를 하는 패들도 있었다. 특전을 노는 방…… 벌써 보름이 모래로 다가오고 있으나 동북산 일족과 그 수하사람들은 설놀이에 지칠 줄 몰랐다.<sup>17</sup>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술놀이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수길은 자기의 소설에서 이 술놀이의 형식을 한국식 표현을 빌어 ‘<가위 바위 보>로 술 먹기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중국 술문화의 한 부분이 되면서도 개인 경쟁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술마시기 문화를 ‘충권(蟲券)’<sup>18</sup>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또는 중국 마작놀이의 게임방식 중

<sup>16</sup> 이기중, 「술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 『한국문화와 한국인』, p80, 2007,3.

<sup>17</sup> 안수길, 『북간도』 2부, p.251.

<sup>18</sup> ‘충권’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놀이는 엄지.검지.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개구리인 엄지는 달팽이인 새끼손가락을 이기고. 새끼손가락은 뱀인

하나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식 해석에 비해 중국식 해석을 보면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주령酒令-술을 마실때의 법도’이라고 부르거나 ‘획권划拳문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술문화는 술 좌석에서 기분을 돋구고 술을 권하는 일종의 수단 법칙으로서 술에 갖든 사회문화라고 인식될 만큼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한나라때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술문화는 처음엔 음주의 절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시외전韩诗外传”<sup>19</sup>에는 이런 음주문화가 자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역사 시기를 거친 창조때에 이르러서는 법도가 아닌 대중의 술문화로 변모하였다. 그것이 오늘에까지 전해져 술좌석에서 사람들이 술을 권하고 기분을 돋구어 재미있게 술을 마시기 위해 부르는 ‘11 개의 수’<sup>20</sup>가 되었고 매 수 대신에 지정된 호칭법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해당시기 진보적인 문화를 대표하고 있지만 후세나 지금에 와서는 술좌석의 윤회제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많이 마시기 위한 경로가 되기도 하여 원래의 참뜻과는 많이 멀어졌다. 오리지날 중국인의 잔치와 같은 경사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휴가시간에 이런 획권술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필자가 근접문의를 통해 얻어온 결과로는 이러한 옛날의 술문화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다만 가깝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술도박의 일종으로 변하였다.

원전의 중국 술문화가 한국에 이입된후 ‘가위 바위 보’식의 문화로 된 오늘도 이러한 문화가 전승되어가는 것은 그것이 중 한 양국에서 일반화된 놀이인 때문이고 또 그러한 술놀이 문화가 지능적인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작가 안수길은 자기의 소설을 쓸 때 중

검지를 이기며 뺨인 검지는 개구리인 엄지를 이긴다. 네이버백과사전. ‘가위 바위 보의 유래’를 참조.

<sup>19</sup> 韩婴, 서한시기 연(오늘의 하북성)사람, 서한시기‘韩诗学’의 창시자. 한영은 汉武帝(무제) 때는 박사로, 汉景帝 (한경제) 때는 태위로 있었음. 그의 저서로는 《韩诗外传》 6 권이 있다

<sup>20</sup> 여기서 말하는 열 하나의 수는 0 부터 10 까지의 수를 가리킨다. ‘0’은 쌍방이 주먹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배 (宝-중국의 옛날돈의 호칭) ,宝不出, 宝不露라는 말을 한다. ‘1’ 은 엄지를 내면서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대표한다. ‘2’는 시작을 할 때 언제나 선후배 칭보를 붙여 부르는데 ‘哥俩好’ ‘爷俩好’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친한 벗으로 여긴다는 뜻이 담겨있다. ‘3’은 ‘삼성三星’을 대표하는데 그 삼성은 ‘福, 禄, 寿’로서 행복과 재산과 장수를 대표한다. ‘4’는 ‘사홍四红’ (학과 卜 닭의 벼슬, 앵두, 연지) 은 길함을 의미, ‘사희四喜’ (가뭇의 비, 타향에서 고향인 만나는 것, 동방화 축야, 금방제명시) 은 희열의 마음을 의미, ‘4 미四美’는 (西施, 貂蝉, 昭君, 杨贵妃) 아름다움의 의미한다. ‘5’는 ‘5 경괴수五经魁首’로 술놀이를 할때는 줄여서 ‘五魁首’라고 호칭한다. 이것은 중국의 5 대 유교경전(诗经 书经 礼经 易经 春秋)을 의미한다. 명대에는 5 경을 시체로 삼았다. 여기서 5 경은 명성과 관록을 의미한다. ‘6’은 ‘육순六顺’ 을 가리키는데 민간에서는 ‘六六大顺’이라고 부른다. 즉 ‘육순’은 ‘君义군자의 의, 臣行신하의 도리, 父慈부모의 자애, 子孝자식의 효도, 兄爱형 장 의 사랑, 弟敬아우의 경의’등을 의미한다. ‘7’은 ‘칠교七巧’를 말한다. 뜻인즉 7 월 7 석은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취득하는 가치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사랑의 원만함과 가정의 안녕을 빈다는 의미다. ‘8’은 ‘팔신선八仙’을 말하는데 민간에서는 ‘팔필말八匹马’이라 부른다. ‘팔신선’은 다재다능하고 구애를 받지 않고 능력을 펴고 사는 존재로 여기서는 비등의 의미다. ‘9’는 ‘구구귀九九归, 구구동 九九同, 구개구九个九’라는 말인데 대동사상과 영생불멸의 뜻을 의미한다. ‘10’은 ‘십전十全, 전가복全家福’라는 말로 상서롭고 원만함을 의미한다. 필자 주.

국의 이러한 술문화의 역사문화 배경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시 될 것은 없다. 그것은 안수길은 자기의 소설에서 자연스럽게 ‘큰소리 술잔치’로 술놀이에 지칠 줄 모르는 동북산 일가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유이민 삶을 서럽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장치하여 ‘마치 비봉춘 조선 사람들의 한산한 설을 비웃는 듯, 그들에게 위세를 보이려는 듯’하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한민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거동하는 타인배려문화와는 판이하다. 그 고난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 경우와 조건여하를 불문하고 봐 줘야 하고 괜찮은 체해 주면서 넘겨야만 하는식의 삶을 강요당했던 괴로운 이국적 문화요소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상의 여지를 작가 안수길은 자기 작품의 기저에 깔아두는 데 성공하였고 또한 유이민들이 끊임없이 체험하고 또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그 분위기를 작품에 담았다는 것 만으로도 한국 유이민 문학과 중국 전통문화의 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되었으며, 그러한 대 분위기 속에 휩싸여 사는 조선인의 씩씩한 처지를 더 실감있게 할 수 있었다..

### 2.1.3 양거리춤놀이秧歌舞

제기차기나 술놀이와 마찬가지로 양거리춤놀이<sup>21</sup> 역시 중국인의 생활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집단놀이이다. 이 집단놀이는 음악이나 가무와 관련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북소리, 라바(중국식 새납), 징소리의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동해 가면서 춤을 추는 이 점에선 한국의 전통놀이인 농악무와 닮은데가 많다. 한국의 농악무 역시 북소리와 팽과리 소리에 맞추어 들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올려주는 춤이라는 면에서 더욱 비슷하다. 그러나 농악무가 무속적인 농경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거리춤놀이와 구별된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의 면상을 역사 인물처럼 분장하고 춤을 추는 양거리춤놀이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탈춤을 닮은데가 있다. 그러나 탈춤이 탈로 얼굴을 가리우고 하는 풍자극의 의미가 진하게 풍기는 반면 양거리춤놀이는 꾸며진 얼굴에 ‘걱걱걱’ 춤으로 역사 이야기나 전설을 이야기하는데 입각점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양자는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거리춤놀이는 중국에서 정월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행해지는 거의 축제에 가까운 경사스러운 행사의 일종이라 하겠다. 『북간도』에 그려진 양거리춤 놀이를 한 토막 읽어 보면 이 점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sup>21</sup> 양거리춤은 대표적인 민간춤놀이로서 본토배기사람이면 어릴 때부터 앵갈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양걸이춤은 네가지 표현법이 있다. 첫번째는 몸을 꼬면서 흔들며 춘다. 춤꾼들은 손에다 부채나 사각 손수건, 혹은 네모난 색비단천 등을 춤추는 도구로 삼는다. 두번째는 양거리춤은 대형 단체무용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양거리춤은 침석 인원상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길 가던 사람도 마음내키면 즉석에서 동참할 수 있다. 세번째는 양거리춤놀이는 스토리를 담은 춤이다. 양거리춤을 출 춤꾼들은 때 민간전설이야기나 역사 속 인물들로 분장하고 춤으로 그러한 인물의 개성을 부각한다. 넷째는 소리다. 북과 징소리, 라바소리에 맞추어 그 지역의 민요를 부른다. 참가자는 적어서 몇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무제한이다. 양거리춤 역시 서구문화의 충격 하에 위축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주로 설명절의 새해 소원을 비는 행사놀이의 하나로 되어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일에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민문화의 하나로 공원이나 광장 같은 데서 건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필자 주.

있다.

동가 지팡집 높은 토담 안에서 라바(喇叭-清国날라리)소리가 흥겨웠다. 재음을 타고 징도 울리면서 거기에 맞춰 연지 곤지 얼굴이 예쁜 색씨, 눈이 찢어지고 수염이 가슴에 까지 드리운 장사, 여러 모양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킁킁뚝뚝 춤을 추고 있었다. 토담보다 더 높은 키! 영거리춤(两脚舞=竹脚舞)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설부터 대보름까지 밤낮을 가림 없이 노는 청국 사람들의 풍속이었으나 금년은 유난히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22

명청 시기의 학자 굴대균屈大均(1630-1696)의 『광동신어』 23에 의하면 양거리 춤은 모퉁이 시절에 행해지던 놀이라 하여 양거리춤秧歌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양거리춤 역시 농경 문화의 일 종류이다. 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모퉁이 할 때 마을의 아녀자들이 모여 와서 북을 치고 춤노래를 행하면서 흥겨움을 돋구어 주고 힘을 부추겨 주면서 가을의 수확을 빈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본원적인 마음, 즉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이 담긴 행사임을 알수 있게 한다. 안수길은 간도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그 곳에도 마음을 붙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시야에는 기타 작가들이 감수 못하는 중국문화들이 흘러들었고, 또한 이를 유이민들의 힘겨운 삶에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게 하는 역할 장치로 내세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중국에서의 양거리춤놀이는 망각되어 가는 전통문화라기보다 왕성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중국의 최강 유머대사로 불리우는 요녕 지방의 조본산趙本山<sup>24</sup> ‘이인극’공연팀이 쉼기하여 오늘의 성황을 맞이하게 된 데는 그 비밀병기가 있었는데 양거리춤의 힘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기재에 의하면 清道光二年(1822) 때에 지린성 怀德县八家子의 한 사찰축제에서 기원하였다 한다. ‘이인극’은 양거리춤을 앞세운 건국과 개방시대를 경과하면서 획기적 무대를 마련했고, 10년 전부터 중국 최대규모의 춘절 잔치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막식 에서도 양거리춤놀이는 하나의 문화종목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양거리춤놀이는 중국에서 이미 100%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안수길의 『북간도』에서 양거리춤놀이를 삶의 배경 중 하나로 택하여 설치한 것은 중국 사회를 보는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양거리춤에 대한 묘사 대목에서 ‘라바喇叭’ 문화까지 놓치지 않았는 걸 보면 허구한 날 이국 문화에 대한 신기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살던 유이민들의 놀라운 적응력도 일정 정도로 보여주었다.

### 2.1.4 폭죽놀이

어디를 가든지 설을 쇠거나 결혼을 하거나 개업식이나 준공식이나 할 것 없이 중국 내 모든 대사에는 경사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또는 액운을 막기

<sup>22</sup> 안수길, 『북간도』, 제 1부, p.151.

<sup>23</sup> 屈大均, 『광동신어广东新语』 9권, 이 고서는 28 권으로 되어있다. 명말 청초의 학자.

<sup>24</sup> 赵本山 (1957,10~), 중국 요녕 철령시 연화촌 석주구石嘴沟 출신, 중국 동북지역 ‘이인극二人转’ 배우, 중국의 ‘소품왕(개그왕)’으로 평가 지어졌음. 현재 조본산 재단의 이사장, 자선 사업가. 또한 농촌소재의 드라마의 연출로 활약하고 있음. 중국 내에서 조본산 신드롬이 형성. 필자 주.

위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폭죽놀이는 한국 전통문화의 일 종류인 야광귀쫓기나 붉은 색 팔죽을 대문간에 발라 액운을 막는 풍속과 닮은 데가 있지만 하나는 위험 요소가 큰 불과 동네떠들썩한 큰 소리이고 하나는 야광귀로 하여금 채구멍을 세계 하거나 집안에서 붉은 팔죽을 쫓서 악귀를 막아보려는 조용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갈라선다.

폭죽놀이 풍속문화는 중국에서 이미 2천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荆楚岁时记』 25에 의하면 ‘정월 초하룻밤 닭이 첫 해를 칠 때 사람들을 자기 집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악귀를 몰아냈다’고 한다. 그런데 고시적에는 폭죽이 없어서 죽竹통을 태워 그것이 내는 큰 소리로 악마를 쫓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다시피 폭죽놀이는 무속신앙의 일 종류로 고시적 노동자들이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을 담았다. 북송 때에 와서는 폭죽 품목이 단일한 것 외에 이미 오늘 사람들이 보는 폭죽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荆楚岁时记』에 의하면 ‘산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불빛과 큰 소리라 하여 사람들은 매년 설달 그믐이 되면 폭죽을 터뜨려 그것으로 산귀신을 쫓았다’고 한다. 이 풍속이 이어지면서 그믐날 폭죽을 터뜨리고 빨간 양초를 집의 구석구석에 밝혀 놓고 북과 징을 치면서 새 해를 맞이하는 풍속이 중국 특유한 풍속으로 굳어진 셈이다.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 풍속은 중국의 남녀노소가 어김없이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죽놀이문화가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는 원주민 아이들이 유이민 아이들을 놀리는 어떤 도구로 되었는가 하면, 꼬마들의 폭죽놀이와 잘못 얽혀 김서방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단을 일으킨다. 그 장면을 간단히 인용해본다면;

#### ‘통 랑’

뒤에서 아이들이 터뜨리는 폭죽(爆竹)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에그 깜짝이야. 등골에서 선땀이 나네.’

여나무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지나가는 조선 사람을 놀래 주자는 장난인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저희 뜻대로 놀라 짱총 뛰는 김서방의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다.

“해해해, 재미있다.”

웃으면서 김서방을 보았다. 놀려 대는 듯한 시선이었다. 익살꾼인 김서방도 발뚱 화증이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미있어? 이 간나새끼들아. 무시기 재미야?”

아이들은 물러서지도 않고 또 한 번 <해해해> 웃는 것이 아닌가?

“요긔드르 봐라”

김서방은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험상궂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때리는 형용을 하면서 입에서 큰 소리로 책망해 주었다.

“다시 사람의 놀라게 했단 봐라.”

“으앙” 26

<sup>25</sup> 宗懔(종림 501~565), 『荆楚岁时记』, 이 고서는 중국에서 세시풍속을 기록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서이다. 이 고서에는 고대 중국의 원단으로부터 설달그믐날까지의 형초(양자강 중류 유역)지역의 연중행사 즉 세시풍속을 기록한 문집이다. 이 고서는 모두 37 권으로 되었고 각종 풍속의 기원을 기재하고 있다.

<http://baike.baidu.com/view/321445.htm>

<sup>26</sup> 안수길, 『북간도』 제 2부, pp252-253.

위의 인용문을 이어서; 한 아이가 울면서 대문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아이가 울지 않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뒤, 김서방이 서너 발짝 옮겨 던기도 전에 뒤에서 “왕바당”<sup>27</sup> 이라는 거친 소리가 그를 불러 세운다. 아이의 아버진 듯한 사내가 ‘술내를 확확 풍기면서’ 김서방에게 왜 아이를 때렸냐고 대든다. 김서방이 서툰 중국어로 몇 마디 하자 바짝 다가서면서 “뛰리팡즈” “일본앞잡이” 라는 욕설과 함께 ‘김서방의 얼굴에서 철썩 소리가 났’고, 그에 김서방이 ‘앞머리로 박치기를 하’자 함께 술놀이 중이던 계사처 윤군 둘이 나와서 동가네사람과 한 패가 된다. 몇 마디 시비곡직도 없이 김서방은 ‘야문’에 끌려간다. 그리고 김서방이 청국인의 ‘설놀이를 방해했다’는 죄명으로 이튿날 참살된다.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안수길의 필끝에서 사라진 유이민 김서방의 생명은 바로 설의 폭죽놀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비봉춘 유이민들에게 원한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이 원한의 씨앗이 계사처의 공정한 해석이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은 고사하고 대보름 잔치를 맞이하는 동가네 집에서부터 김서방의 죽음은 조선사람들끼리 한 짓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에 ‘창윤’을 비롯한 조선사람들은 억이 막히고 악에 차서 어쩔바를 모르는 형국에 놓이게 된다. 폭죽놀이를 통한 작품의 갈등은 이로써 한차례 작품 분위기를 팽팽하게 하는 효과를 이루어낸다.

이같이 안수길 작품에서 상술한 놀이문화들을 볼 때 제기차기놀이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사잇섬 도농에 목숨을 건 유이민의 삶을, 술놀이문화와 양거리 춤놀이문화는 다음 폭죽놀이에서 터질 김서방의 죽음을 비롯한 유이민들의 서러운 삶, 그리고 무법천지인 중국의 경찰기구인 계사처의 모습 등을 중국문화라는 큰 배경으로 안받침 해주고 이로서 작품을 밀어주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는 작가적 기량으로 작품의 형성에 이바지 하려는 본심에서 중국문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곳곳에 깔아놓은 것이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한국문학 작품속에 살아숨쉬는 인물들을 키워낸 거름으로서의 중국문화형상이 아닐 수 없다.

『북간도』에는 상술한 중국의 놀이문화 외에도 여타 여러가지 중국문화 요소들이 풍부히 깔려있다. 이를테면 전족(纏足) 문화, 당의(唐装) 문화, 외상(賒賬)문화, 고량주 문화, 거리문화, 호칭문화...등을 작품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중 전족문화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2 전족(纏足)문화

<sup>27</sup> ‘王八蛋왕바당’, 『북간도』에서 여러번 나오는 욕이다. ‘왕바王八’는 거북이란 말이고 ‘당蛋’는 알이란 말이다. 이 욕은 여러가지 유래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고시적에 정사는 얼치기로 하고 향락만 일삼는 왕을 지칭하여 욕하는 말로 후에 민간에서는 상대방을 극도로 미워할 때 하는 욕으로 되었다. 다른 하나의 유래설은 아래와 같다. ‘왕바당’은 ‘왕팔단忘八端’의 변음에서 온 것이라는 설이다. 여기서 ‘八端’은 ‘孝, 悌, 忠, 信, 礼, 义, 廉, 耻’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이 여덟 근본을 상실했다 하여 이르는 잇을 ‘忘’에 ‘八端’을 붙여서 부른 말이다. 후에 사람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화가 날 때 이 말을 쓰게 되었는데, 음변이 되어 후세 사람들에게는 큰 욕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로 굳이 풀이를 한다면 ‘빌어먹을, 망할놈’ 등에 해당된다. 필자 주.

“중국에서 전족의 역사는 자그만치 천여년”<sup>28</sup>이다. 『전족사』를 쓴 저자 고기흥의 연구에 따르면 ‘북송 말기 12세기부터 전족이 궁녀들에게 행해졌고 남송시기에 들어서면서 그 관습이 확산되었다. 원대를 거쳐 명, 청 시기가 되면서 민중에까지 확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7년 3월 23일 발 미국 글로벌타임즈 신문에 의하면 ‘그 시대에 있어 전족은 신분의 상징이고 여자들이 귀족가문에 시집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서 굳이 전족의 유래설을 찾아보자면 확실한 것은 없고 “남당의 제 2대왕 원종이 춤추기 좋아하는 애첩이 있었는데, 커다란 모양의 연꽃 모양의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애첩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때 원종의 애첩은 천으로 발을 푹푹 묶고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궁녀들이 모방하기 시작”<sup>29</sup>한 것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전족의 기원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 있어 전족은 문화재에 가까운 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건국이 된지 20여년이 되자 중국정부는 전족은 봉건통치사상의 유물이라 하여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에서 40여년이 더 지난 지금에는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0~70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안수길의 『북간도』는 전족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럼 그의 작품 속에 그려진 전족에 대한 묘사를 한토막 보자.

만주 원주민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훨씬 부족했다. 더욱이 산동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거의가 남자 독신들뿐이었다.

여성의 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에서일까?

십세기 南唐의 궁녀에서부터 시작해 십여 세기 동안 내려왔다는 폐습, 전족(纏足)의 유행이

말해 주듯 여자는 귀중한 존재인 동시에 완전히 남편의 예속물이 아닐 수 없었다. 대륙적인 봉건의식!<sup>30</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진실이다. 그 하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족이 행하던 시기부터 여자는 남편의 재산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전족 문화에 대해 소개한 안수길의 저의는 무엇일까. 작품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의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선 유이민으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노름빚 대신 아내를 볼모로 내놓는 일에 대한 어떤 합리한 역사 배경 장치로 대응된 듯하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최삼봉 뒤를 이어 토호 동북산의 훈주인으로 된 노 덕삼이 투전에서 ‘판돈이 딸려 아내를 판돈의 담보로 내걸고 마’는 장면을 그리면서 연결 시켜놓은 부분이 바로 전족문화인 때문이다. 말하자면 ‘10세기전’부터 행한 중국의 전족문화에 합리성을 부여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지에서 다시 위의 인용문 끝부분에 ‘대륙적인 봉건의식’이라고 부르짖은 부분을 대할 때 너무도 외부적이고

<sup>28</sup> 高洪兴, 『纏足史』, 上海文艺出版社, 2007, 9, p2. 그의 저서에 의하면 전족은 19세기 30년대의 스타일, 19세기 60,70년대의 스타일, 19세기 80,90년대의 스타일, 19세기 후기의 스타일, 20세기 20,30년대의 스타일 등으로 전족의 스타일이 나뉘어져 있다.

<sup>29</sup> 이양자, 『여성을 통해 본 중국사』, 2010년 7.p 6.

<sup>30</sup> 안수길, 『북간도』 제 1부, p.177.

창백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서해나 강경애의 작품들에서도 빛을 딸이나 아내의 몸으로 때우는 말단적 일들이 비일비재인 것도 필자의 이러한 판단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다시 안수길의 입장에 서서 그 시대인의 심증을 가늠해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앞에 둔 유이민들에게 얹치고 덮치는 불행을 경감하고자 하는 작자의 숨은 지혜가 아닌가도 싶다. 노덕삼의 아내 복동예의 훗날 처사가 이러한 해석을 낳게 한다. 그는 ‘제 남편 아닌 청국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그 곳을 떠나 버리는데 그것은 ‘완강한 정조관념’에서 만이 아닌 ‘인간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안수길은 옛중국의 여성들이 전족으로 도주가 불가능하고 전족으로 남자의 소유물로 살았던 중국 전족문화에 대한 소개로 많은 유이민 여성들의 처참한 삶의 한 토막을 실감있게 그려냈다.

### III. 맺는 말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간도』에 비친 중국문화형상을 살펴보는 일은 상술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필자가 본 논문에서 논의 한 것 외에 아직 여러 개 영역이 그 과제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 줄 세우고자 한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부수적으로 남아 있는 중국문화형상에 머물고 있는데, 필자가 굳이 이를 고집한 까닭은 재료가 충족하다거나 연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다. 실상은 이와 상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논문을 써 가는 도중에 지어 완성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머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만큼 필자가 다른 영역은 새롭기만 하다. 하지만 내친 김에 해야 한다는 강압감에 논문을 여기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북간도』에 비친 중국문화 형상을 알아보는 데 주력하였다. 크게 놀이문화와 전족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놀이문화를 한국적 분위기가 다분한 제기차기와 술놀이, 중국분위기가 다분한 양거리춤과 폭죽놀이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빌어 자그마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듯한 문화조각들이 모이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이러한 문화형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집합을 통해 한국 문학작품에 스며있는 중국문화의 형상을 알아보는 일은 유이민으로 살았던 한민족의 과거 속 자아를 재확인하고 『북간도』에 담겨있는 중국문화를 한국문학작품과 더 끈끈히 이어주는 목표를 얼마간 가능케 하였다.

요즘 글로벌 시대에서 문화는 작게는 거의 모든 가치를 문화로 운운하고 크게는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뉴대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북간도』라는 작품에 나오는 중국문화들은 작중 인물이 디디고 서 있는 땅과 같은 존재였다.

향후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타 소설들에 한해서도 중국문화형상을 겨냥한 이러한 작업을 나름대로 펼쳐보고자 한다.

**【Abstract】****Korean modern literature of china's cultural image research**

China's neighbours, china and south korea's cultural exchanges, and its content is a comprehensive. the study of south korea, 'and modern literature of china's cultural image.

Korean modern literature of china's image and modern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product image ( jmagologie ) comparative literature study in france, the main subject of a country in the literature of description. Historically, china has been used in modern times is the absolute "he who ( the other ) , korean, chinese is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s the core in confucianism is the chinese culture and civilization of east asia region. but modernization process began to change this state of affairs. china's image in the modern context ( context of change. ) Korean the modernization of most east asian countries, the same as a result of colonialism in the east of western expansion process. china absolutely "he" position in the western powers under the impact of the vanished. korean to interpret the objective of modern literature. the context of china's image from the social changes in context. .

This article in the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of china's image into the city image, the image of the chinese image of the course of study o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china's cultural image, As "he" ethnic image for its own culture. as a "he" china's image by the korean solely rely on modern literature to local realities of, is not complete the task, namely, south korea's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stair. this should be the image of china in modern literary value of knowledge. .

Key words:안수길, <북간도>, 유이민소설, 중국문화형상, 놀이문화.